



독산성



세마대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독산성은 백제 시대 돌로 쌓은 산성으로 둘레가 1천100m다. 현재 약 400m 정도의 성벽과 성문 4곳이 남아 있다. 오산과 수원, 화성의 평야 한가운데 솟아 주변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다.

조선 시대에는 남한산성과 용인의 석성산성 등과 함께 도성 방어를 위한 삼각체계를 형성했다. 임진왜란 중인 선조 25년(1592) 전라도 순찰사 권을 장군이 독산성에 주둔하며 왜군 수만 명을 무찌르고 성을 지킴으로써 아군이 경기지역으로 북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후에도 도성을 방어하는 큰 축을 담당했다.

현재 성내에는 국가사적 140호인 세마대지(洗馬臺址)가 있다. '화성지(華城誌)'에 따르면 왜군이 독산성에 물이 부족함을 알고 성안을 포위하자, 권을 장군이 말을 산 위로 끌고 가 쌀로 씻기는 시늉을 해 보였고 왜군은 물이 풍부한 것으로 속아 물러난 이후 그곳을 세마대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는 성을 수리하고 정조 20년(1796) 수원성 축조와 함께 고쳐 쌓아 오늘에 이르는데, 1982년 방형의 치와 5개의 성문을 복원하는 등 전면 보수했다.

오산시, 독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오산시가 독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독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본격화했다. 총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연구용역은 12월까지 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독산성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개최해 고고학적 자료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성의 축성기술 등 문헌 자료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성곽 보수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유산

등재의 첫 단계로 문화재청에 제출하는 '세계 잠정목록' 완성을 위해서다. 시는 제출기한이 5년여인 점을 고려해 2030년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 추진은 첫 단계인 셈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독산성의 세계 유산적 가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핵심 가치를 확인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도출하는 데 두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등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에서는 수원화성(1995년), 화성에선 용·건릉 등 조선왕릉(2009년), 경기 광주에선 남한산성(2014년)이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⑤



독산성 항공촬영